

목어

살아 숨쉬는 문화재

유럽을 여행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공통적인 충고 가운데 하나는 로마를 여행의 종착지로 삼으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로마의 유적을 먼저 보고 여행을 하면 다른 곳들은 그 아류이거나 이미 본 유적들에 미치지 못하는 인상을 받게 때문이라고 설명을 한다.

문화재는 유형의 것이 있는가 하면 살아 숨쉬는 역동적인 것도 있다. 무형문화재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다. 한여름 밤 로미오의 유적지에서 펼쳐지는 음악회를 감상할 수 있다는 것은 유형 무형의 이태리 문화와 만날 수 있는 극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경험의 장면을 떠올리면서 최근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사건 가운데 하나를 깊이 생각해 본다. 동촌 토성지역을 발굴하면서 일어난 문화재 발굴팀과 아파트를 지으려는 주민 개발팀과의 마찰이 바로 그것이다.

문화재팀은 이곳이 백제의 도읍지일 것이란 흥분을 감추지 못하면서 발굴에 임했고 아직 정리되지 않은 문화유산의 성과를 얻은 것이 틀림없다. 이런 와중에 주민을 알세운 업체들이 야밤중에 유적발굴지역을 성토하여 다시 매몰시켜 버린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그들의 주장은 아무리 문화재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되겠느냐는 항변이다. 참 안타까운 평평한 주장의 대립이다.

문화재는 개인의 것이 아니라 우리 선조들의 슬결이 담겨져 있는 우리 모두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발굴팀과 개발팀의 당사자간 문제인 것처럼 말려두고 뒷짐을 지고 바라보는 정부의 처사가 민망하다. 어떤 문화재 혹은 유적도 그와 유사한 불거리는 재현시켜 만들 수 있어도 그 속에서 살아 숨쉬는 혼을 만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문화재는 그 형태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나온 세월만큼 혼의 나이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백제의 유적지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음악회를 한번 상상해 보라. 정부는 이제 더 이상 당사자간의 문제로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문화재를 발굴하고 지켜주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 그것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엄숙한 역할이다.

이근후(이화대 교수·본지 논설위원)

문화재 관람료 반환소송 조계종 대응

사찰기여도 적극 홍보

특위구성 공원입장료 폐지 촉구

조계종은 참여연대의 관람료 반환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5일 관람료위원회와 합동 징수사찰 연석회의를 열고 집행부와 관람료위원회, 소송 사찰 주지스님 등 9인으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조계종의 대응 방안은 △소송에 대해서는 중단 차원에서 대응하고 △위크숍 개최를 통한 여론홍보 및 국립공원 정책 개발과 제시 △나아가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는 쪽으로 모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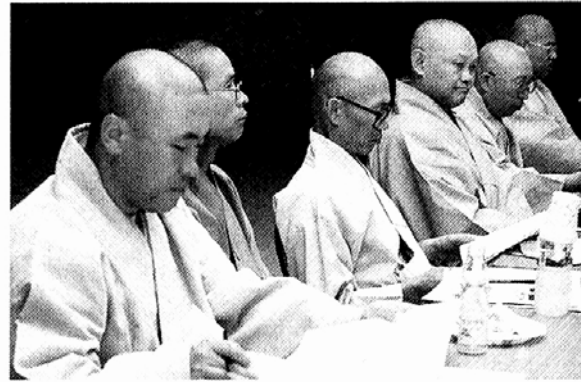
■중단 차원의 소송 대응
신홍사나 천은사 등 해당사찰에서 개별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중단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사찰이 그동안 부담하게 관람료를 받아왔다는 국민들의 오해를 푸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천은사의 경우 참여연대에서 주장하듯, 등산로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 조계종에 유리하지 않은 점에 의거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사찰의 국립공원 기여도와 국립공원 편입에 따른 사찰의

손실을 강조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국립공원에 편입된 사찰의 토지는 317만㎡에 이르며, 이에 대한 보상은 일체 청구하지 않았다. 이는 국민들의 자연환경과 문화향유를 위한 조계종의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참여연대가 '작은 권리'를 내세워 관람료 반환소송을 냈듯, 조계종이 정부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한다면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참여연대가 시민의 작은 권리를 중시하는 만큼 조계종은 국민들에게 깨끗한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적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마치 조계종을 부당이익이나 취하는 집단으로 매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립공원 정책 위크숍
국립공원과 문화재보존에 관한 정책 위크숍을 세 차례 정도 개최해 중단 차원의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정부와 국민들에게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사찰과 국립공원의 올바른 관계' '사찰문화재의 바람직한 보존 방안' '자연



○참여연대의 관람료 반환 소송과 관련, 25일 열린 관람료위원회와 합동징수사찰 연석회의에 참여한 스님들이 집행부가 마련한 대응 방안을 진지하게 듣고 있다.

환경과 문화재보호 활동 홍보 방안' 등의 주제를 가지고 6월부터 위크숍을 열기로 했다. 국립공원 정책, 문화재 유지·보수 비용의 현실화, 사찰의 국립공원 기여도가 주내용이 된다. 위크숍에서 발표된 내용과 토론으로 모아진 의견을 정부와 협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조계종은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는 97년 대통령선거 당시 김대중 후보가 약속했던 것임을 상기시키며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조계종은 "당시에는 경제위기 상황이었던 세수라도 아꼈다는 명분으로 유보했지만 정부측의 발표대로 경제위기를 벗어난 현재에 이르러서도 공원입장료를 폐지하지 않는 것은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입장료를 징수함으로써 자연환경 보존보다는 때때로 개발에 치중해왔으며, 이에 따라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시비가 끊임없이 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조계종은 참여연대가 18일 천은사와 신홍사를 상대로 문화재관람료 반환 소송을 낸 데 대해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25일 연석회의에서 채택한 성명서를 통해 조계종은 "시민이 누릴 권리 가운데는 깨끗한 자연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전통문화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며 참여연대에 대해 "발표 이후 줄곧 경제적 이익만 강조하여 결과적으로 물질만능의 가치관을 더욱 조장해오지 않았는가 되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조계종 해암종정 하안거 결재법어

"봄철 아난데 풀이 푸르리오"

假使棒如雨點하고
鴨川盡奔하야도
未能當得向上宗乘事하나니
到這裏하야는 釋迦迦藍도
更參三十年하야사 始得다.
其餘歷代善知識과 天下大導師는
盡是依前草木精靈이나니
庭前梧樹子와
獅子無佛性은
是什麼乾屎橛고 還會麼야.
石鏡生兒하야니
夏安居日이로다.
向上一路는 千聖도 不傳이라.
須彌頂上에 駕起鐵籠이라 하니
良久云
不來春節이여 草再이리오.
喝 一喝



실사 동풍이로 때리기를 비오듯 하고 / 할하기를 우레같이 하더라도
함상종승의 법에는 함당치 못하니, / 여기에 이르러서는 석가와 달마도 / 다시 삼십년을 더 참구하여야 되리라.
그 밖의 역대 선지식과 현하 대종사는 / 모두 초목에 붙어 사는 잡귀이니 / '돌 앞의 잣나무'와 '개가 불성이 없음'은
이 무슨 마른 통대대기인가. 알겠느냐?
돌사자가 문득 아이를 낳으니 하안거일이다.
함상일로는 일한 성인도 전하지 못한다.
수미산 꼭대기 위에 무의 배를 타고 간다 하니
(함상 득묵후에 말하였다.)
아직 봄철이 아난데 어찌 풀이 푸르리오.
아 악-

뛰어난 근기 위한 뛰어난 가르침

①간화선은 최고의 수행법인가

2000년 기획

禪과 21세기

"간화선은 화두를 참구하는 수행법이다."

이 문장이 유의미한 진술이 되려면 문장의 구성 요소인 '화두'와 '참구'의 의미와 효용성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 그런 연후에 간화선이 최고의 수행법인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화두'란 '이야기'라는 뜻이다. 이야기이래 깨침의 경지를 그대로 드러낸 언어, 동작, 사물의 이야기이다. 그것은 깨치지 못한 아예는 년선이나 동문서답같이 보이기 때문에 심히 곤혹스러운 숙제가 된다. 그런데 이 숙제는 미룰 수가 없다. 끝없는 윤회의 괴로움을 벗어나려면 이 숙제를 풀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화급한 명령이 때문에 화두를 공안(公案)

이라고도 한다.

또 '참구'한다는 것은 의심을 풀려는다는 말에 가깝다. 불교의 핵심적 지리가 무엇이나고 물었는데 조주는 어찌서 "돌 앞의 잣나무"를 들먹거리던 말인가? 외문거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의심을 품는다고 해서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 끝까지 그 이유를 찾는 것은 아니다. 불교를 조금 안다고 잣나무로서 제법실상, 혹은 진여불성을 드러냈거나 하고 암만 기특한 생각을 하더라도 그것은 화두를 참구하는 것이 아니라 망상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 의정(疑情)이 사랑분발이 끊어진 데까지 이르지 않으면 화두를 제대로 참구한다고 말할 수 없다. 말하자면 머리로 '내가' '무엇을' 의심한다기보다 의심하는 자와 의심되는 것이 따로 없이 오직 의심하는 기운만이 전신에 오롯할 때 비로소 참구한다고 말할 수 있다.

화두를 참구하는 것은 물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이다. 화두를 참구하는 것이 어떻게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 될 수 있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화두를 참구하는 것이 말과 생각이 끊어진 경지에 이르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말과 생각이 끊어진 경지는 곧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혹은 망념에 물들지 않는 무심(無心)의 상태요, 불성(佛性)이 현전하는 자리이다. 무심은 의식이 없는 혼수상태가 아니라, 업식(業識)에 의해 왜곡되지 않아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보는 깨어 있는 의식이다. 화두를 의심하는 기운은 심지어 깊은 잠 속에서도 성상(惺惺)하게 깨어 있어 한다고 말할 정도이다. 이렇게 화두 삼매가 충분히 성숙된 연후에 시절연인이 도래하면 비로소 불성을 철견(徹見)하게 되는 것이다. 아무튼 간화선법(法)은 해탈에 이르는 아주 효율적인 수행법일 수가 있다. 그 까닭은 다음과 같다.



서정형 서울대 강사·철학

내관하는 목조선에 비해서 혼침(昏沈)에 떨어질 위험이 적고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둘째, 단지 집중력 강화라면 굳이 화두를 고집할 이유가 없을 지도 모른다. 화두는 의심을 유발하는 외에 화두마다 특정 심리 상태로 이끄는 힘이 있다. 근기와 성정에 맞는 화두가 따로 있다는 주장이 이를 뒷받침한다. 선지식이 수행남자를 점진하는 수단이 여러 가지인 것도 화두의 다양성과 무관하지 않다.

셋째, 화두는 일상 논리로 풀리지 않는 것이기에 수행자로 하여금 발디딜 곳이 없게 만들어 버린다. 즉

생각의 의지처를 모두 빼앗아 버림으로써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의 미지의 영역, 즉 은산철벽(銀山鐵壁)으로 물아붙이는 것이다.

넷째, 간화선법에서 흔히 회자되는 삼요(三要)는 출발과 같이 삼매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큰 믿음(大信心)에서 흔들림 없는 의지가 생기고, 큰 분발심(大憤心)은 재촉이 되며, 크게 의심하는 마음(大疑心)은 수행의 바른 길을 지킨다.

다섯째, 간화선은 특히 단번에 여래의 지위에 뛰어올 수 있다(一超直入如來地)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불성이 라고도 하고 참마음이라고도 하는 '한 물건'을 사무쳐 알면 그것으로 생사(生死)의 큰 일이 일시에 해결되는 것이다. 그 한 물건은 밖으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쓰고 있는 것이니만치 본질적으로는 교화이나 수행도 필요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뛰어난 근기를 위한 뛰어난 가르침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간화선이 뛰어난 수행법이라는 것과 그 뛰어남이 현실 세계에서 실현되고 있는가는 다른 문제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훌륭한' 수행법이 최근 들어 심심찮게 도전받고 있고, 또 그럴만한 이유가 없지 않다. 간화선을 위해서라도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헤초여행개발(주) HYECHO ADVENTURE TOURS. 대표 ☎ 733-3900 6263-3900 담당 ☎(직) 6263-3921-22,28 fax 733-3780 www.hyecho.co.kr E-Mail:hyecho@hyecho.co.kr

佛子世界 걸망메고 대륙의 중앙으로....

스포츠조선과 함께하는 현해탄건너 대마도탐방 ₩440,000. 일 정: 부산 - 대마도 - 부산(2박 3일). 포함사항: 선편, 전 일정 숙박, 관광, 역사학자 및 현지안내인 동행, 보험. 출발 일: 5/19 6/2, 4(금) - 20명 선착순. 신영훈과 함께 현해탄과 대마도를 탐방합니다. (신영훈 원장의 특강) ▶ 신영훈(申榮勛) 연혁 1935년 개성에서 출생. 1959년부터 국가지정 중요 국보·보물 보수에 종사. 문화재 전문위원(1962~1999)이었으며, 법원사 불일문화원 원장, 해라시아 문화연구소 소장으로 재직중. 주요 작품은 송광사 대웅보전, 보탑사 3층석탑, 저서로 「한국의 궁실 건축」 「우리 문화 이웃 문화」 등 다수.

Tibet 금단의大地 티벳 걸망여행 ₩990,000. 평균고도 4,000m 넘니드는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티벳고원... 스토로 불교 '생임을 저지르는 티벳인들의 삶..... 그리고 히말라야! 時空을 넘니드는 티벳으로의 순례를 시작 하십시오. 일 정: 서울 - 네팔, 카트만두 - 히말라야를 넘어 티벳 평원으로 (자유일정)... 포함사항: 국제선항공료(아시아항공+네팔항공: 1년 항공권) 중국 및 티벳여행허가서, 카트만두 1박. 출발 일: 매주 화, 목, 토 개별출발

전통의 성지순례전문 예조에서 선보이는 인도·네팔 불교성지순례 ₩990,000. 부처님의 4대성지인 탄생지, 성도지, 조전법문지, 일변지 순례 및 8대성지 순례. \* 순례후 카트만두에서 개별적으로 귀국 가능합니다. (아시아항공+네팔항공: 1년 항공권) 일 정: 델리-바라나시(녹야원)-부다야카(성도지)-나란다 불교대학-라즈기르(영축산, 왕사성, 죽림정사)-파르나-바이살리(대립정사, 아쇼카 석주)-쿠시나가르(열반사, 다미터)-사헤트 마헤트(사위성, 기원정사)-룸비니-카트만두-방콕-서울(10일간). 포함사항: 1년 항공권, 숙소(조식포함), 한국안내인, 전용차량. 출발 일: 5/28, 6/11, 7/2, 16 목, 일(15명 이상 출발)

JEEP 타고 티벳평원을 횡단 ₩1,990,000. 일 정: 카트만두-라사-장제-시가체-시가-장무-카트만두(11박 12일). 포함사항: 항공료, 숙박(조식포함), Jeep(4인승), 중국비자, 티벳여행허가서 사원입장료, 영어가이드, 보험. 출발 일: 매주 목요일(4명 이상 - 최소규모 출발합니다) \* 영국, 독일, 프랑스, 한국 연합상품으로 Jeep 이용조건.

실크로드(Silkroad) 長安에서... 쿤자랍까지 ₩1,690,000. 불교전승지인 실크로드에서 동, 서양을 넘나들던 구림스님들을 생각하며.... 일 정: [21박 22일] 서안-난주-가옥관-돈황-유원-투루판-카슈가르-타스쿠르간-쿤자랍고개(버스)-우루무치(열차)-서안. 포함사항: 항공료, 비자, 숙소(조식포함), 안내인, 도시간의 이동, 보험. 출발 일: 5/29, 6/12, 26/7/24, 7/31, 8/7 (10명 이상 출발)

도반과 함께 - 네팔 히말라야 순례를... 실산 순례(트레킹) ₩1,290,000. 도반과 동행시 도반의 경비는 ₩1,190,000입니다. 부처님의 수행지인 히말라야를 순례하는 일정으로 안내부르나 히말라야로 떠납니다. \* 순례후 네팔과 방콕 그리고 인도의 성지를 개별적으로 순례하시고 델리 또는 카트만두에서 개별적으로 귀국 가능합니다. (1년 항공권) 일 정: 카트만두-히말라야 순례-포카라-카트만두-방콕(8박9일). 포함사항: 항공료, 숙소(조식포함), 국내선, 현지안내인(산길안내). 출발 일: 5/23, 30, 6/6, 13 매주 화, 목, 토 (2명 이상 출발)

※ 10년 전통의 헤초 여행사는 불자와 함께하는 국내 최대의 불교전문 여행사입니다. 후원: 현대불교신문, 스포츠조선